

지역 메아리

김제농기센터 맥류관리 당부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는 금년 맥류 생육재생기를 20일로 판단하고, 웃거름 시용, 잡초방제, 배수구정비, 보리밭기(답압) 등 맥류관리를 당부하였다.

웃거름 시용은 생육재생기 후 10일 이내 요소를 10a당 10kg 정도로 뿌려주어야 하는데, 생육이 좋은 포장은 1회에,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요소를 10a당 5kg씩 2회에 걸쳐 나누어 주는 것이 좋으며 1차는 생육재생기 후 10일 이내, 2차는 1차 살포 15일후에 살포하면 된다.

습해나 동해를 입어 황화현상이 발생한 포장은 요소 1~2%액(물 20리터에 요소 200~400g)을 10a당 100리터씩 2~3회 엽면시비하여 생육을 촉진시켜 줘야 한다.

또한 방제시 증복 살포 및 과량 사용으로 인한 약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창업스쿨 수강생 모집

완주군이 창업도움미로 나섰다. 21일 완주군 창업보육센터는 내달 9일까지 창업을 준비하거나 관심있는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완주군 창업스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스쿨 과정은 내달 12일부터 4월 4일까지 주 2회(월, 수) 총 8회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창업트렌드 이해와 아이템 찾기 △인생다모작 디자인 △창업자를 위한 원가 및 매출 관리기법 △스타트업 실전 노하우 1.2 △창업자를 위한 재무회계 △사업계획서 작성기법 △사업계획서 발표를 위한 파워포인트 디자인 1일 완성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290-2487, 2488)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의치 이동검진 실시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지난 6일까지 접수된 보건소 의치지원사업 대상자의 1차 구강검사를 20일 만경보건지소를 시작으로 구강보건실(동지역) 등 7개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이번 검진은, 대상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찾아가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로 해당 거주지 보건지소로 순회 이동검진 중이다.

검진대상자는 전신건강상태 및 구강상태 검진을 받고, 의치 적합자로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지역 여건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시의료기관에서 의치시술을 받게 된다.

보건소 의치 지원사업이 저소득 어르신들의 구강기능 회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해 본다. /김제=곽노태 기자

시내버스 노선개편 조정

완주군, 이서면~전주 남부시장·평화동 등 주요지점 운행



완주군의 노선개편으로 이서면에서 전주 남부시장, 평화동, 예수병원 등 전주시 주요지점을 한 번에 갈 수 있게 됐다.

완주군의 노선개편으로 이서면에서 전주 남부시장, 평화동, 예수병원 등 전주시 주요지점을 한 번에 갈 수 있게 됐다.

21일 완주군은 지난해 2월 20일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 이후 지속적인 현장모니터링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8일 시내버스 노선개편 조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되는 노선개편의 주요 내용은 200번(애룡-평화동), 220번(대농-평화동) 등 이서지역 간선노선 신설, 삼례지선 34번, 34-1번(삼례터미널-봉동주공) 경유지 변경 및 35번, 36번(삼례터미널-고신터미널) 시간표 조정 등이다.

특히 이서지역 간선노선 신설로 남부시장, 평화동 등 전주로 나갈 때 전 주대에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노선개편으로 이서면에서 서부·남부시장, 예수병원, 평화동 등 전주시 주요지점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을주민 및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4-1번(삼례터미널-봉동주공) 해전마을 출발시간을 조정해 삼례터미널 대기시간을 줄였다.

35번, 36번(삼례터미널-고신터미널) 버스기사들의 운행시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운행기록계를 검토해 운행횟수를 8회에서 7회로 조정해 운행시간을 확보했다.

서 간선·지선·콜버스 심박지를 고루 갖추게 됐다.

삼례지선 34번(삼례터미널-봉동주공)은 완주군청 연장 운행시 봉동주공을 경유토록 노선을 변경해 봉동주공아파트 배차간격을 1시간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34-1번(삼례터미널-봉동주공) 해전마을 출발시간을 조정해 삼례터미널 대기시간을 줄였다.

35번, 36번(삼례터미널-고신터미널) 버스기사들의 운행시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운행기록계를 검토해 운행횟수를 8회에서 7회로 조정해 운행시간을 확보했다.

완주군은 시내버스 노선개편 조정사항에 대한 노선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해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요 환승정거장 및 변경지점에 교통안내도우미를 배치한다.

또한 버스정류장에 노선안내도를 수정해 주민들의 버스 이용시 불편을 최소화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실시하게 됐다"며 "교통복지 1번지 완주군 명성에 걸맞게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중심의 대중교통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료 직업교육훈련 교육생 모집

김제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3월 26일부터 개설·운영

김제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신미란)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취업지원을 위해 오는 3월 26일부터 무료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제여성새로일센터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사회 및 산업체의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매년 직업훈련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딩교육전문가과정(3.26~6.08), 오피스회계사무원과정(4.02~6.15), 기업맞춤형 식육마이스터과정(5.02~7.10) 등 3개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직업교육훈련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취업희망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수료 후 취업연계가 지원된다. 직업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구비서류(참가신청서, 이력서, 증명사진2매, 통장사본)를 준비해 김제새일센터(063-540-4105)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제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제고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여성인턴제,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과 협력을 통해 본 교육과정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취·창업 및 사후관리지원 서비스 등 취업 및 고용유지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나 참여할 수 있고, 수료 후 취업연계가 지원된다. 직업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구비서류(참가신청서, 이력서, 증명사진2매, 통장사본)를 준비해 김제새일센터(063-540-4105)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제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제고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여성인턴제,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성과 협력을 통해 본 교육과정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취·창업 및 사후관리지원 서비스 등 취업 및 고용유지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농기센터, 영농설계·생활기술 과제교육 실시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는 20일부터 28일까지 농촌여성 단체인 생활개선회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읍면동 지역을 순회 농업·농촌의 전통문화 계승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영농설계 및 생활기술 과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농촌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 먹거리를 생산 할 수 있는 친환경 영농실천 기술교육과 농·작업 및 야외 활동에서 진드기 등 해충으로 감염되는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자연에서 얻어지는 천연재료를 활용해충 기피제를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행복한 농촌 건강한 삶을 지켜가고자 한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김제시 생활개선회는 누구나 살고 싶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 생활 환경개선과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농촌여성 학습단체로 뜻이 있는 함께할 가족을 모집, 화합



과 소통을 통해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특색 있는 농촌여성단체 활동으로 '희망찬 농업! 행복한 농촌! 건강한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주제의 중심에 회원들이 함께하며 실천코자 한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순회교육을 통해, 19개 읍면동 800여 회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서 농촌여성들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이서혁신도시 공공도서관 기공식

내년 4월 완공 목표... 혁신도시 삶의 질 높여

완주군이 혁신도시 내 이서혁신도시 공공도서관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21일 완주군은 혁신도시내 공공도서관 건립부지(한국전기안전공사 옆)에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공식을 열었다.

이날 기공식 행사에는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정성모 완주군의장과 김성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송지용·박재완 전북도의원, 박달순 완

주경찰서장, 박숙자 완주교육지원청장, 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혁신도시 내 교육문화 거점으로 거듭날 공공도서관 착공을 축하했다.

완주군 이서면 갈산로 46번지에 위치한 도서관은 오는 2019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70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2763㎡(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종합·어린이·디지털자료실, 공부방,

문화강좌실, 민원센터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여행·과학'을 콘셉트로 건립될 예정으로 혁신도시 내 교육문화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전주시와의 업무협약으로 이서혁신도시 공공도서관은 완주군민은 물론 전주시민도 이용가능하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혁신도시는 완주군 발전의 동력이며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도약의 중심축이다"며 "이서혁신도시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